

동화

# 호통 버스 신수나



“잘 갔다 와.”

엄마가 버스에 내 엉덩이를 밀어 넣었다. 앞사람을 따라 단말기에 버스가 드를 됐다. ‘뽐’ 하는 소리가 높고 짧게 났다. 엄마처럼 단호하고 냉정하다.

엄마가 버스에 날 태우는 순간, 할머니를 보러 갈 꿈은 날아갔다. 우리 집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있다. 그런데도 엄마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명종합학원에 날 등록시켰다. 매일 엄마가 차로 학원에 데려다준다. 날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시내에서 불일을 본다. 학원만 갔다 오면 하루해가 짝깍 넘어간다. 하지만 견딜만하다. 엄마는 시내에 가면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로 날 달래주니까.

엄마랑 막 집을 나서는데 이모에게 전화가 왔다. 외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거다. 학원엔 다 갔다. 할머니를 찾으러 가는 게 먼저다. 내 입은 표정관리 중인데 주먹이 ‘앗싸’를 외쳤다. 그런데 엄마는 나를 버스 정류장으로 끌었다.

“나, 버스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프기 전의 할머니 말이다. 엄마가 공부 타령을 하면, 할머니는 “애들은 노는 게 공부”라며 호통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호통은커녕 “할머니!”하고 불려도 못 알아본다. 더 이상 날 ‘통통이’라고도 부르지도 않는다. 내가 어릴 때 하도 통통 뛰었다 한다고 해서 생긴 별명이었다. 애가 도대체 가만있지를 않는다고 엄마는 불만이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어린애가 가만 있으면 어디 아픈 거라며, 그게 다 건강증거라며 또 호통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할머니는 나를 ‘통통이’라고 불렀다. 그때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 할머니가 날 통통아, 라고 한번 불러만 준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그나저나 할머니도 대체 어딜 가신 걸까.

버스는 내 속도 모르고 신나게 달렸다. 한참 달리던 버스가 멈춘 곳은 재래시장이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들이 우르르 올라탔다. 무슨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떠들썩했다. 할머니들은 크고 작은 보따리들을 버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언젠가 할머니 손에



역시나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4학년’이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4학년이면 스스로 알아서 할 나이?

그럼 학원을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자신감을 보이는 건 바보 같은 것이다. 눈과 입꼬리를 최대한 늘어뜨리고 축축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본다. 그런데 괜한 연극이 아니다. 혼자 버스 타는 건 정말, 자신 없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타 봐. 4학년이면 혼자 버스 정도 탈 수 있을 나이야.”

엄마는 단칼에 잘랐다. 초등 4학년이면 어쩌고 하는 학습지광고는 들어봤어도, 4학년이면 혼자 버스 탈 나이라는 말은 또 처음이다.

엄마는 재빨리 버스 앱을 내 핸드폰에 깔았다. 버스 정류장 옆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도 한 장 샀다. 난 맨발을 삼키는 것처럼 엄마의 설명을 구약구약 머릿속에 집어 넣었다.

“엄마, 나도 할머니 찾으러 갈래. 지금 학원이 문제야?”

난 팔을 크게 내저으며 정류장을 나오려 했다. 엄마가 내 팔을 누아챘다.

“넌 학원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괜히 거저저거리지만 하지, 엄만 경찰서로, 길거리로, 찾아봐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이러다 나까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엄마를 올려다봤다.

“네가 어린애야? 스스로 할 때도 됐잖아. 4학년이나 된 녀석아. 집 주소도 알겠잖아. 엄마 아빠 전화번호도 다 아는 데 뭐가 문제니?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

역시나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4학년’이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4학년이면 스스로 알아서 할 나이? 그럼 학원을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창 생각 중인데, 엄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정신 차리고 학원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는 열심히 할머니 찾을 테니.”

이럴 때면 할머니가 정말 그림자. 물론

클러 시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 속에 우리 할머니도 있다면, 나도 망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느닷없는 호통 소리가 들렸다. “산 노인네처럼 어린 게 왜 그렇게 축 처져 있어. 통통아! 기운 차려!”

나도 모르게 혀,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거짓말처럼 진짜 우리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다가가 틈도 없이 할머니는 어느새 내 앞으로 와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할머니가 날 알아보고, 통통이라고 불렀다.

“진짜 우리 할머니 맞아요?”

“할미면 그냥 할미지, 진짜 할미, 가짜 할미가 있더냐?”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보니 어딘가 달라 보인다. 생기가 있다고 할까? 참, 이럴 때가 아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다들 할머니 찾고 난리 났어요, 열린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핸드폰을 든 내 손을 잡았다.

“걱정 마라. 할미 잘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어”

“정말요?”

“근데 너 어디 가기에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냐?”

“학원요.”

“전에 어디로 뺐지 모르는 공 같더니. 안 되겠다. 할머니랑 같이 가야겠다.”

“어디요?”

“놀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데.”

“아, 놀이동산요?”

“놀이동산보다 더 좋은데.”

그때 버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지나왔던 재래시장 이름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아까 잘못 들었나?’

고개를 가우뚱하는데 할머니가 또 호통

쳤다.

“어린 게 뭘 생각이 그리 많아. 어서 내



러!”

버스에서 할머니는 뱅글 뛰어들었다. 기억이 돌아오니 할머니의 건강도 돌아왔다. 할머니는 약을 사야 한다며 시장 입구에 있는 약국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약국 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줄을 늘려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약을 사기보다는 약국 앞 정류장에 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거라며, 할머니는 눈을

정긋했다. 약국에서 따뜻한 차량 음료수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 노인들로 와글 와글한 약국 안은 마치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

더 넣을만한 물건이 없었는지, 할머니는 훌쩍 카트에 올라탔다. 카트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만큼 짙어진 할머니가 날 훌쩍 들어 올려 카트에 태웠다.

할머니는 물약을 하나 사서 마셨다. 그리고는 약국 안을 한 바퀴 돌며 오래전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물약이 짙어지는 생물이라도 되는 걸까, 약국 문을 밀고 나가는 할머니의 새우 등이 짙어졌다. 팔을 앞뒤로 활달하게 흔들며 할머니는 성큼성큼 앞서갔다.

널찍하고 잘 정돈된 마트와는 달리 시장은 복잡복잡했다. 작은 가게들이 줄줄이 비엔나소시지처럼 늘어서 있었다. 가게 안은 물론 거리로도 과일이며, 채소가 쏟아져 쏟아져 전열돼 있었다. 다다마다 붙은 가게들은 골목과 골목으로 거미줄처럼 이어졌다. 할머니를 따라 골목을 걷다 보면 그곳이 그곳 같아 보였다. 무슨 미로 속처럼

렀. 파는 물건만 달랐다. 생선만 파는 거리가 쪽 나오다가, 방향을 틀면 또 옷만 파는 가게가 쪽 늘어서 있는 식이었다. 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잡았다. 할머니를 잃어버리기로 하면 큰일이었다.

할머니는 내게 옷을 고르라고 하셨다. 난 엄마라면 촌스럽다고 절대 안 사주는 히어로 캐릭터 티셔츠를 골라 들었다. 할머니가 내 양어깨를 툭툭 쳤다. “오, 정말 멋진데.”

어느새 난 히어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유명 브랜드라며 엄마가 억지로 입힌 범생이 재킷은 온데간데없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 싶었는데, 발에는 바퀴 달린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엄마에게 좋

았다. 그러면서 내 입에도 막 넣어줬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냐다 출렁랑을 쳤다. 할머니가 뛰니 나도 덩달아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웬지 할머니는 슬레잡기라도 하듯 신난 표정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게 주인들은 못 본 건지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그러이며, 냄비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잡화점 골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가 길은 잃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려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할머니가 카트를 밀고 나

타났다. 내가 다가갈 틈도 없이 할머니는 카트를 썩썩 몰며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보이는 대로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난 할머니 이상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정신이 반쯤 들었다.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근데 이상한 건 가게 주인들 태도였다. 할머니의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오히려 양쪽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더니 나중엔 카트를 향해 마구 물건을 던져 주는 게 아닌가. 카트가 무슨 골대라도 되는 것처럼, 고등

어가 날아가고 배추가 공중을 떠다녔다. 신기한 건 그 많은 물건을 담아도 카트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나도 보이는 대로 카트를 향해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호박을 통째로 집어넣고, 완구점에서 로봇이며 인형을 집어 마구 던져 넣었다. 더 넣을만한 물건이 없었는지, 할머니는 훌쩍 카트에 올라탔다. 카트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만큼 짙어진 할머니가 날 훌쩍 들어 올려 카트에 태웠다. 가

트는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뱅뱅이 치기 시작했다. 어떤 놀이기구보다 빠르고 신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장 끝에 있는 골목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변은 틀림없는 시장이었는데 점점 단단한 흰색

“통통아, 저것 봐라. 네가 좋아하는 빵 튀기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데요.”

할머니는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두 손으로 빵튀기를 와작와작 입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었다. 옛이나강정 같은 것에 거리낌 없이 손을 뻗었다. 과일가게에서도 사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

었다. 그러면서 내 입에도 막 넣어줬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냐다 출렁랑을 쳤다. 할머니가 뛰니 나도 덩달아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웬지 할머니는 슬레잡기라도 하듯 신난 표정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게 주인들은 못 본 건지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그러이며, 냄비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잡화점 골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가 길은 잃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려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할머니가 카트를 밀고 나

타났다. 내가 다가갈 틈도 없이 할머니는 카트를 썩썩 몰며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보이는 대로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난 할머니 이상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정신이 반쯤 들었다.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근데 이상한 건 가게 주인들 태도였다. 할머니의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오히려 양쪽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더니 나중엔 카트를 향해 마구 물건을 던져 주는 게 아닌가. 카트가 무슨 골대라도 되는 것처럼, 고

등어가 날아가고 배추가 공중을 떠다녔다. 신기한 건 그 많은 물건을 담아도 카트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나도 보이는 대로 카트를 향해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호박을 통째로 집어넣고, 완구점에서 로봇이며 인형을 집어 마구 던져 넣었다. 더 넣을만한 물건이 없었는지, 할머니는 훌쩍 카트에 올라탔다. 카트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만큼 짙어진 할머니가 날 훌쩍 들어 올려 카트에 태웠다. 가

트는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뱅뱅이 치기 시작했다. 어떤 놀이기구보다 빠르고 신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장 끝에 있는 골목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변은 틀림없는 시장이었는데 점점 단단한 흰색

“니 어디야?”

“엄마, 나랑 할머니랑……”

“할머니 벌써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엄청 피곤하신가 보다. 근데 너 도대체 어디야? 학원도 안 왔다고 하고.”

그때였다. 우리 동네 버스정류장을 알리는 버스 안내방송이 들렸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소리가 들렸는지, 엄마가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버스에서 내려 시계를 보니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내가 버스에서 잠이 들어 꿈이라도 꾸

결까? 근데 어떻게 도로 집이야?”

버스정류장에 날 내려놓은 버스는 저만

치 달리고 있었다. 호통 소리 같은 경적을 울리며.

- 그림=성혜림**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광주시 아트시내버스참여 청년작가 선정
  - ▲제2회 전국심장 미술대전 청년작가상 수상 레지던스
  -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양산동 6기, 광주 무등현대미술관 3기 입주작가
  - ▲무등산coboc 초대전 '나는 어른일까요?', '어린 아이'전 등 개인전 다수

벽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밝은 빛이 번쩍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천정에 주렁주렁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다. 무슨 열매인가 했는데, 손잡이었다. 그리고 보니 창문 아래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버스 안이었다. 할머니도 카트도 흔적 없이 사라진 듯했다. 나는 흥분이 가라앉아 다닐 수 있도록 오히려 양쪽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더니 나중엔 카트를 향해 마구 물건을 던져 주는 게 아닌가. 카트가 무슨 골대라도 되는 것처럼, 고

등어가 날아가고 배추가 공중을 떠다녔다. 신기한 건 그 많은 물건을 담아도 카트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나도 보이는 대로 카트를 향해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호박을 통째로 집어넣고, 완구점에서 로봇이며 인형을 집어 마구 던져 넣었다. 더 넣을만한 물건이 없었는지, 할머니는 훌쩍 카트에 올라탔다. 카트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만큼 짙어진 할머니가 날 훌쩍 들어 올려 카트에 태웠다. 가

트는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뱅뱅이 치기 시작했다. 어떤 놀이기구보다 빠르고 신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장 끝에 있는 골목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변은 틀림없는 시장이었는데 점점 단단한 흰색

“통통아, 저것 봐라. 네가 좋아하는 빵 튀기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데요.”

할머니는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두 손으로 빵튀기를 와작와작 입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었다. 옛이나강정 같은 것에 거리낌 없이 손을 뻗었다. 과일가게에서도 사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

었다. 그러면서 내 입에도 막 넣어줬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냐다 출렁랑을 쳤다. 할머니가 뛰니 나도 덩달아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웬지 할머니는 슬레잡기라도 하듯 신난 표정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게 주인들은 못 본 건지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그러이며, 냄비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잡화점 골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가 길은 잃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려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할머니가 카트를 밀고 나

타났다. 내가 다가갈 틈도 없이 할머니는 카트를 썩썩 몰며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보이는 대로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난 할머니 이상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정신이 반쯤 들었다.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근데 이상한 건 가게 주인들 태도였다. 할머니의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오히려 양쪽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더니 나중엔 카트를 향해 마구 물건을 던져 주는 게 아닌가. 카트가 무슨 골대라도 되는 것처럼, 고

등어가 날아가고 배추가 공중을 떠다녔다. 신기한 건 그 많은 물건을 담아도 카트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나도 보이는 대로 카트를 향해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호박을 통째로 집어넣고, 완구점에서 로봇이며 인형을 집어 마구 던져 넣었다. 더 넣을만한 물건이 없었는지, 할머니는 훌쩍 카트에 올라탔다. 카트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만큼 짙어진 할머니가 날 훌쩍 들어 올려 카트에 태웠다. 가

트는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뱅뱅이 치기 시작했다. 어떤 놀이기구보다 빠르고 신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장 끝에 있는 골목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변은 틀림없는 시장이었는데 점점 단단한 흰색

“통통아, 저것 봐라. 네가 좋아하는 빵 튀기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데요.”

할머니는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두 손으로 빵튀기를 와작와작 입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었다. 옛이나강정 같은 것에 거리낌 없이 손을 뻗었다. 과일가게에서도 사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

었다. 그러면서 내 입에도 막 넣어줬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냐다 출렁랑을 쳤다. 할머니가 뛰니 나도 덩달아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웬지 할머니는 슬레잡기라도 하듯 신난 표정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게 주인들은 못 본 건지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그러이며, 냄비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잡화점 골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가 길은 잃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려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할머니가 카트를 밀고 나

타났다. 내가 다가갈 틈도 없이 할머니는 카트를 썩썩 몰며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보이는 대로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난 할머니 이상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정신이 반쯤 들었다.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근데 이상한 건 가게 주인들 태도였다. 할머니의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오히려 양쪽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더니 나중엔 카트를 향해 마구 물건을 던져 주는 게 아닌가. 카트가 무슨 골대라도 되는 것처럼, 고

등어가 날아가고 배추가 공중을 떠다녔다. 신기한 건 그 많은 물건을 담아도 카트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나도 보이는 대로 카트를 향해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호박을 통째로 집어넣고, 완구점에서 로봇이며 인형을 집어 마구 던져 넣었다. 더 넣을만한 물건이 없었는지, 할머니는 훌쩍 카트에 올라탔다. 카트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만큼 짙어진 할머니가 날 훌쩍 들어 올려 카트에 태웠다. 가

트는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뱅뱅이 치기 시작했다. 어떤 놀이기구보다 빠르고 신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장 끝에 있는 골목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변은 틀림없는 시장이었는데 점점 단단한 흰색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